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 어려움에 관한 사례연구

허영림* ·곽정선**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이 겪고 있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살펴 보고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실제적 요소는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 11명을 면담한 사례연구이다.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고자 면담 내용을 분석하여 연구 주제와 관련지어 의미해석의 단계를 거쳤다. 연구결과,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의 양육 어려움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사회로부터 받는 차별과 편견, 낮은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아버지의 양육 무관심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을 위한 적극적인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어머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족 내 아버지 역할의 변화를 유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요청된다. 그 외 사회 공동 책임의 일환으로 전반적인 사회의 인식 변화가 양육에 관한 어려움의 해소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다문화 가정, 양육어려움, 질적 사례연구

*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 석사

I. 서론

현대사회는 세계화, 국제화라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이러한 변화들은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가는 계기가 되어 1990년대에는 국제결혼의 활성화로 ‘다문화 가정’이라는 새로운 가족 형태가 생기기도 했다. 급기야 2007년 한국은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기록하였으며, 농촌의 새로 결혼한 4쌍 중 한 쌍이 외국인과의 결혼이라는 통계 제시는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가 가능케 되었다. 이주되어 들어오는 국내적 측면의 관심과 함께 이주현상은 다른 측면의 국제적 관심과 개입을 불러일으켰다.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은 다 민족적 성격을 인정하고, 한국이 실제와는 다른 단일민족국가라는 이미지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적절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내에 사는 모든 인종, 민족, 국가 그룹들 간의 이해와 관용, 우의 증진을 위한 인권 인식프로그램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민족, 국가 그룹들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정보들을 초·중·등 학교 교과목에 포함시킬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하였으며, 그 외에 차별금지법의 신속한 제정과 전반적인 사회적인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진영 외, 2009). 이런 국제적 관심과 개입이 있는 가운데,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한국 사회의 적응이 이루어지기 전에 출산과 양육이라는 과제를 맡게 되면서 어머니가 느끼는 의사소통의 문제,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부터 오는 상실감과 부적응 문제를 함께 경험하게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치관, 생활태도가 다른 이중 문화 속에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정

체성과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부모와의 문제로부터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게 되었다(김남숙, 2009). 서원준(2010)의 연구에서도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은 한국어 발달이 또래에 비해 늦어 학업 성취가 낮고, 또래와 다른 외모로 인해 주변의 놀림을 받아 자라면서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현희(2007)는 결혼이민자들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차별적 시선, 부부갈등 및 가정 폭력, 자녀 교육, 자녀의 부적응 행동, 취업의 어려움 등의 순으로 연구발표 되었다. 이런 원인으로 오성배(2005)는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이 다른 아동들에 비해 언어교육, 자기정체성 형성, 대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은 한국의 언어와 사회 문화적 적응을 아직 마치지 못한 어머니의 영향도 크다고 보고했다. 교육과 보호를 받아야하는 유아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그러나 사실상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이 겪는 양육에 대한 어려움은 곧바로 양육스트레스나 양육효능감과 관련되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Abidin, 1992; 조영숙, 2008). 양육자인 어머니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부모로서의 역할회피와 함께 위축된 행동을 보여 결국 자녀의 정서적, 행동상의 문제를 낳게 되어 가족 전체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전상미, 2006). 이처럼 결혼을 통해 한국을 선택한 국제결혼여성들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그들의 자녀들과 가정의 문제로 이어져 사회문제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보면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연구된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 어려움과 적응프로그램 요구도’

에 관한 연구도 사실상 다문화 가정 어머니가 경험하는 구체적인 양육 어려움에 관한 연구라기보다는 단지 어린이집에서의 적응을 돕는 연구로 봐야한다. 이에 연구자는 다른 인종, 문화, 언어를 가진 나라로 이주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가 실제로 느끼는 양육어려움을 조사하기 위해 질적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11명의 사례를 통해 다문화 가정 어머니 개개인이 경험한 양육어려움의 요인을 살펴보고,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990년 이후부터 국제결혼이 활발해짐에 따라 2005년부터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이민 여성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시민단체 및 지방단체들의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 조사가 대부분이었다. 그 후 점차 다문화 가정이 형성되고 자녀 출산과 양육이라는 삶의 과제를 접하게 되면서 자녀 양육,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언어교육, 학교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되었다.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하던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이 언어, 문화, 생활 습관이 다른 나라에 와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기까지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가족 내에서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이 한국 생활에 대한 적응과 동시에 한국 말 배우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중국 조

선조 어머니들의 경우, 문화나 혈연적 배경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으나 부모의 언어 습관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영유아기의 자녀들이 정확한 한국어를 구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이유로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언어,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안은미, 2007).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은 이러한 초기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도 전에 출산과 양육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언어 습득이 중요한 시기의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게 되어 성장하면서 언어 발달 지연을 경험한다.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낮은 경우, 자녀의 학습 부진으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이 적극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조영달, 2006). 조영달(2006)이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로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실태 조사’를 통해 결혼이민자가정의 자녀현황을 보고 하였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언어 문제로 주변 사람들의 차별과 편견을 받아 낮은 자존감을 보였으며 학교나 가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긍정적인 정체성 확립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숙(2007)은 다문화 가정이 봉착하는 자녀교육 문제와 시사점의 연구에서 이주 여성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사회적 편견이 있어서 자녀들이 언어적인 문제를 겪지 않도록 언어교육이 초등학교 이전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을 주장했다. 또한 어머니들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언어와 문화 차이,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이 자녀들의 성장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강현주(2007)는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의 미숙한 한국어 실력은 부적

응과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지게 되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한국어 표현력도 부족하고 제한적이게 된다고 하였다.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는 문화적 가치관, 환경의 차이로 인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갈등을 경험한다. 서로 다른 생활 습관과 문화적 차이,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의 부족으로 인한 감정 전달의 어려움은 자녀 양육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즉, 자녀들은 상황에 따라 어떤 가치관을 따라야 할지 고민하게 되고 어려서부터 기본 생활습관, 기본적인 예절과 질서를 배워 자기행동조절 능력을 키워 가야 할 시기에 적지 않은 혼란을 겪게 될 수 있다. 한국인과 외모로 구분 짓기 어려운 중국 조선족 어머니들의 경우, 한국 어머니들과 대화를 좀 나누다 보면 중국 사람인지 알아보고 좀 다르게 대하는 경우를 겪는다고 호소했다. 즉, 미국, 유럽 외국인들과 다르게 중국, 동남아 지역의 외국 출신 어머니들은 후진국,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 편견 때문에 차별을 하는 한국어머니들 때문에 자녀 또래의 어머니들과 교류하며 자녀 문제를 상의하고 자녀들의 한국친구를 갖게 해 줄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고 호소했다. 부부가 둘 다 외국 국적인 경우보다 다문화 가정의 경우 가정생활에서 의사소통의 문제, 문화차이에서 오는 문제, 심리적인 문제, 가족 내에서의 갈등 등의 다양한 문제들에 더 많이 직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편견에서 벗어나 한 인간으로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양영자(2008)는 다문화교육이 편견과 차별의식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볼 때, 이러한 편견과 차별의식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효선(2008)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여성 자녀들 중 또래 아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다고 하는 비율이 17.6%였으며 그 이유는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현영(2006)은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 우리와 외모가 비슷한 중국동포보다는 상이한 외모를 가진 다른 나라 출신의 자녀들이 따돌림 대상이 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지역적으로 도시보다 농촌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사회 통계 조사 결과, 한국사회로 온 결혼이민자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꼽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결혼이민자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음을 말해 주며 이러한 시선이 이주민들에게는 아프게 다가 왔던 것이다(김이선 외, 2007: 재인용). 정선희(1997)는 어린 유아들조차도 타인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이미 인종, 민족성, 사회적 계층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접하게 되고, 유아기에 습득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변화되기가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유아기에 받아들여진 여성, 장애아,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이 유아들에게 그대로 심어주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채정란(1999)은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인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지 않도록 유아들에게 유치원에서부터 다문화 교육이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경애(2010)의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과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편견, 문화 간 갈등과 협동, 존중 등의 다문화교육을 받은 경

험이 많을수록 다문화 인식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른 문화와의 차이를 넘어서서 문화 간 상호관계성과 상호주관성을 강조하고, 문화간의 차이와 존중을 포함하는 다문화교육 내용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래야만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포용의 내용으로 심화하여 사회구조의 변화를 도모하고, 다문화적 상황에 바람직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했다.

여성 결혼이민가구 절반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가구에 해당하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도 상당 수 있어 결혼이민자 가족이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배제되어 있음을 시사했다(유재신, 2009).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도 전문직에 종사하기보다 일용직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가계 소득이 낮아 양육비용 및 생활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는 곧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다수가 최저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현희(2007)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이 맞벌이가 필요하지만, 언어 장벽으로 취업도 힘든 상황에서 부부간 갈등, 가정폭력의 문제로 이혼이 급증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진행된다고 보고했다. 안현주(2006)는 경제권을 남편이 가지고 있으면서 남편의 허락으로 지출이 가능한 경우 경제적 박탈감을 지적했다. 경기도 국제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에서는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도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양육에서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정기선 외, 2007). 이러한 이중문화 환경을 가진 자녀들이 잘 적응 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인 아버지들 또한 양육조력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하지만 아버지들은 한국 생활 적응에도 어려움을 갖

고 있는 어머니들에게 자녀 양육 전부를 맡겨 버리고 스스로 적응하며 해결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자녀들과의 관계, 시부모님과의 관계,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모두를 한꺼번에 시작하고 적응해 나가는 어머니들의 어려움은 더 커지게 된다. 어려운 가정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국제결혼을 선택한 이들은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과도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아 타국생활에서 오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함께 나눌 주변 사람들이 없다. 그런 가운데 자녀 출산과 양육의 문제가 더해지게 된다.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이 하루 빨리 한국 생활에 적응하며 행복한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단체의 노력과 많은 연구 과제들을 진행하기 전 그들을 우리나라에 적응 시키고자 하는 입장보다는 그에 앞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의 출신국가에 대한 배경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최순자, 2005). 김갑성(2006)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 양육에 있어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했듯이 취학 전 영유아들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설동훈(2005)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실태와 보건, 복지 지원 정책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이 겪는 결혼생활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들의 자녀를 교육하게 되면서 자녀들에게까지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이 언어·문화의 차이로 인해 부부간 갈등이 생길 경우 이들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에게 상담 및 도움을 준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말하며 모국인 친구와 자신의 가족, 친척들만이 도움을 주고 있으며 남편이나 기타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은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후 점차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어졌다. 허미화(2008)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중 유아기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언어발달이 늦게 되고 어머니가 가정생활에서 어려움이나 불행함을 느낄 경우 유아에게 정체성 혼란 및 열등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박미경(2007)은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 유아의 특성 및 교사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문화 가정의 유아들이 자신들의 미숙한 언어발달로 인해 행동이 앞서는 공격성을 보였으며 또래관계에서도 어울리지 못해 위축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했다. 신혜정(2007)은 결혼이민 가정의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가정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이 자녀들의 자아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녀 양육과 관련되어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와 효능감에 관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한경선, 2008)에 대한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족관계 만족도, 결혼 만족도가 낮은 경우, 그리고 한국어 실력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는 자녀들에 대한 직접적인 스트레스 보다 가족 간의 관계, 한국어 실력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부모로서 갖는 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이 줄게 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김도희(2008)의 연구에서는 결혼 이민 여성의 양육 효능감에 관한 영향 연구로 사회적 지지는 결혼이민여성의 양육 효능감을 높이는 요인이

며,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민 여성의 문화 적응에 밀접한 영향을 가진다고 했다. 그리고 문화 적응은 결혼이민여성의 양육 효능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결혼 이민여성의 양육에 효과적인 도움을 주는 양육 효능감을 높이려면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매개효과를 통하여 제공되어야 한다고 했다. 내국인과 결혼이민여성의 양육스트레스를 비교한 김미숙(2009)의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 어머니가 내국인 어머니보다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어려운 한국 생활 때문으로 보고 있으며, 부족한 한국어 실력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문제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 어린 나이와 낮은 소득, 양육지식의 부족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들은 서울, 경기 지역의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 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출신 국가는 중국 조선족, 몽골, 베트남, 태국이었다. 국적별로 나눠 보면 중국 조선족 7명, 베트남 2명, 태국 1명, 몽골 1명이며 대상자들은 연구자의 지인을 통해 소개 받기도 하고, 지역 문화 센터를 찾아가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는 어머니를 선정하기도 했다. 어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32.6세이며 취학 전 아동인 만5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로 선정하였으며 다른

〈표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순	대상자	나이	현재 국적	출신국		직업		결혼 기간	거주 지역	자녀 연령
				모	부	모	부			
1	최영란	33세	한국	중국	경찰	마트 근무		4년	화성	만0세(남) 만2세(여)
2	미시영	41세	몽골	몽골	사업	주부		6년	화성	만5세(남) 쌍둥이
3	리 우	23세	베트남	베트남	해외 영업직	공장 근무		4년	화성	만1세(여)
4	김미란	38세	중국	중국	건설업	주부		4년	서울	만2세(여)
5	허혜영	41세	중국	중국	건설업	주부		20년	서울	만2세(남) 만17세(여)
6	최성은	31세	중국	중국	자영업	주부		5년	화성	만2세(여)
7	테이란	28세	태국	태국	생산직	주부		5년	서울	만2세(여)
8	강미숙	31세	중국	중국	자영업	주부		4년	서울	만2세(남)
9	이영미	27세	한국	중국	건설업	건설업		6년	부천	만2세(남) 만3세(여)
10	신지영	32세	한국	베트남	아파트 관리	재봉 공장		9년	부천	만4세(남) 만6세(여)
11	김 진	34세	한국	중국	택시 운전	주부		6년	부천	만5세(딸)

자녀 중 취학아동이 있는 경우는 2명이 있었으나 미취학 아동에 대한 경험을 기준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고,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사례 1의 최영란씨는 중국 출신으로 현재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며 한국에 와서 직장근무를 하던 중 남편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남편은 경찰이고 만0세(남), 만2세(여) 자녀 둘을 키우고 있다. 중국의 부모님들도 현재는 한국에 거주하고 계셔서 부모님과 자주 연락하며 왕래 하고 있다. 한국어는 한국에 와서 혼자

배웠으며 쓰기에는 자신이 없지만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했다. 두 아이 모두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으며 어머니는 근처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했다.

사례 2의 미시영씨는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며 몽골 출신으로 직장생활 하던 중 연애결혼으로 남편을 만났다. 친정 부모님은 몽골에 계시고 일 년에 2번 정도 아이들 방학기간에 몽골로 다녀온다고 했다. 남편의 도움으로 연애기간 동안 한국어를 배웠다.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주말에만 집에 오며, 남편이 주말에 오면 쌍둥이 만5세(남) 자녀들을 잘 돌봐주는 편이라고 했다. 아이들이 다른 한국아이들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언어나 다른 것들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쓴다고 했다. 다른 대상자들에 비해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

사례 3의 리우씨는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며 베트남 출신이다. 국제결혼 소개소를 통해 남편을 만나 2번 만난 후 결혼하게 되었다. 현재는 남편과 어머니 모두 공장 생산직으로 근무로 일하고 있다. 한국어는 알고 지낸 베트남 스님을 통해 처음 배웠고 임신 기간 중에도 5개월 정도 더 배웠다고 한다. 자녀는 만1세(여)인데 주로 조부모님이 어린이집을 다녀 온 후에 양육을 맡아 하신다. 다른 어머니들에 비해 의사소통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보였다. 자녀 얘기를 시작하자 한국어를 잘 가르쳐 주지 못해 자녀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자신이 말을 잘 못해서 친구들 사귀는데 도와주지 못해 속상했는데 어린이집을 다닌 후로 말을 잘 따라하고 여러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다고 한다.

사례 4의 김미란씨는 중국출신으로 만2세 여자 아이가 있으며 자녀의 씩씩한 성격이 좋다고 했다. 어머니는 한국어를 잘하는 편인데

중국사람 말투가 나와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정확한 발음으로 배웠으면 좋겠다고 한다. 한국어 쓰거나 문화를 어떻게 가르쳐 줘야할지 몰라 제일 걱정이라고 하였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초등학교에 진학하면 학교 과제를 어떻게 도와줘야할지 고민이라고 한다.

사례 5의 허혜영씨는 중국 출신으로 2명의 자녀가 있는데 첫째는 만17세, 둘째는 만2세로 남매간의 연령 차이가 많이 난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며 엄마가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고 한다. 처음 아이가 말이 늦는 편이었는데 어린이집을 다닌 후로 말도 많이 좋아졌고, 배려심도 많아진 것 같아 좋다고 한다. 본인이 사용하는 언어가 조선족 사투리처럼 들리는 것 같아 신경을 많이 쓰고 예절이 중국과 달라 예절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이 중국 사람인 것을 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사례 6의 최성은씨는 중국 출신으로 자녀는 만2세(여)이다. 시장에서 남편과 함께 중국 식료품점을 운영한다. 지금 둘째를 임신 중이고 친정 부모님이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다. 부부가 모두 바빠 친정 부모님이 주로 아이를 많이 봐주신다. 자녀는 미술학원에서 운영하는 유아반에 다니고 있다. 임신 중이기도 하지만 첫째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어 미술학원을 보낸다고 했다. 부부가 함께 장사를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 조금 더 크면 중국 말을 가르쳐서 2개 국어를 잘하길 원한다고 했다.

사례 7의 테이란씨는 태국 출신으로 만2세(여) 자녀를 키우고 있다. 남편과는 같은 직장에서 2년 정도 연애했다가 결혼했고, 친정 부

모님은 태국에 계시고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한국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못했는데 내년엔 이중 국적이 가능해져 그때 이중 국적을 얻고 싶어 한다. 그 이유는 태국에 본인 집이 있어 그렇다고 한다. 자녀가 처음에 한국말을 잘 따라하지 못하고 말이 늦어 걱정이 돼서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다. 아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 남편하게 물어보기도 한다. 지금 본인도 한국어 문화 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사례 8의 강미숙씨는 중국 출신으로 서울시 풍납동에 거주하며 조선족이다 보니 한국어는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면서 지금은 주부로 있지만 취업할 의사가 있어 근처 어린이집이 야간보육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자녀는 만2세(남)로 신체활동을 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했다. 남편은 건설업에 종사하며 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할지 모르고 아이 보기를 무서워한다고 했다. 친정 엄마가 근처에 살고 계셔 힘들거나 고민이 생길 때면 친정엄마와 많이 상의한다. 또 보육료 지원을 조금 받고 있는데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사례 9의 이영미씨는 부천시에 거주하며 만2세, 만3세 자녀가 있다. 직업은 남편과 함께 건설현장의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자녀 문제로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남편이 자녀들에게 체벌을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이 항상 걱정이라고 한다. 생활비 지출이 많아 어린이집 보육료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하며 그래도 아이들을 돌 봐줄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낸다고 한다. 둘째 아이가 말을 늦게 시작해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잘한다고 한다. 자녀 또래의 어머니들과의 만남을 꺼

려하고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성격이고, 아이들 키우고 일 하는 것이 힘들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다고 했다.

사례 10의 신지영씨는 베트남 출신으로 재봉 공장에서 근무하며 남편은 아파트 관리 일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과 만4세 연령의 자녀가 있다. 주변의 베트남 친구들이 있어 잘 어울리며 힘들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자원봉사자가 가정에 방문해 자녀들과 함께 한국어를 배웠다고 한다. 언어적인 문제 보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 하며 한국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 중에서도 한국인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사례 11의 김 진씨는 중국 출신으로 남편은 택시 운전을 하고 김 진씨는 종종 아르바이트를 한다. 만5세 딸이 있는데 자녀가 어린이 집에서도 활발하고 재주가 많아 자녀 교육 문제에 관심이 더 많아진다고 한다. 교육방식이 중국과 한국이 다르고 초등학교에 가서 사교육비가 많이 소비 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한다. 자녀가 커가면서 엄마와 있는 시간 보다는 학교에서 또래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지면 한국말은 잘 배우게 될 것이라고 하며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소수의 연구 대상이 보여주는 고유하고도 총체적인 현상을 탐구하고자 할 때에 주로 쓰인다. 질적 연구는 보통 대상을 있는 그대로 두고 진행하며, 양적 연구

는 대상들의 속성 중에서 밝혀내고자 하는 공통된 특성을 추출하기 위하여 통제된 실험을 실시하게 된다. 윤준채·이형래(2007)는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하여 ‘질적 연구 방법은 현상학과 해석학에 기초한다.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조건을 통제하지 않고 자연적인 상태에서의 관찰과 면접을 통해 현상을 언어적으로 자세하게 기술하여 이해하려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 연구 방법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질적 연구 방법이 현상 관찰을 자연스럽게 기술함으로써 풍부한 연구자 대상자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사례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생활환경과 내면적 경험을 이해하고자 대상자와 친밀감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개인이 경험하고 문제라고 생각했던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언어화하여 구체적인 상황과 경험사례를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해 갔다. 양적 연구 방법과는 다른 질적 연구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하므로 진정으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그 내용들을 분석하고 유목화하여 연구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이 느끼고 경험했던 구체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면담을 통해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동안 겪고 있는 언어의 어려움, 사회적 차별과 편견, 경제적 어려움, 취업 문제, 부부 갈등 등의 문제들을 이야기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자는 설문지를 통한 양적 연구의 방법 보다는 그들과의 개별적 면담을 통해 다양한 방향에서 그들의 경험담을 듣고자 하였다.

3. 연구 절차 및 분석

연구대상자들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면서 녹음을 시작했다. 준비된 면담지를 중심으로 면담하는데 질문을 그대로 읽거나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답을 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연결해 나가면서 주제와 관련되지 않는 이야기도 경청하며 연구대상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면담 시간은 40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본 연구의 면담내용은 자녀 양육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와 예절교육,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주변 사람들의 시선, 배우자와 가족들의 무관심)에 대한

〈표 2〉 면담지 구성 내용

면담 내용	하위 요소
한국어 의사소통	발음 차이
	한국어 쓰기
	자녀와의 상호작용
	자녀들의 한국어 능력
한국 문화의 이해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 정도
	자녀들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비용	양육의 소비 패턴
	양육비 지원 정도
	어머니의 요구도
남편의 양육 조력	양육조력의 정도
	다른 가족의 도움 정도
주변인들과의 관계	양육 조력자의 유무
	양육 상담을 위한 주변인의 도움 정도

질문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어떻게 대처 하는지,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면담을 통해 얻게 된 자료를 이해하고자 분석을 시작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녹취된 면담 내용을 참여자가 표현한 그대로 전사하고, 자료 통합 후 영역을 분석하였으며 면담 내용과 연구물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연구 주제와 관련해 의미해석의 단계를 거치게 되었다(김영천, 이용숙, 1998; Bogdan & Biklen, 2006; Denzin & Lincoln, 2003; Walsh, 1998; 박미경, 2007). 전사과정에서는 심층면접에서 녹음한 자료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하였으며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면담과정에서 인상적인 부분과 현장 기록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통합된 자료를 중심으로 내용에 따른 영역 분석의 과정을 범주화 하고 난 후 분류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모든 자료를 범주화 하지 않고 연구 주제와 관련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요소, 가족 내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문제, 양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등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자가 내용을 구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에 대해 어머니들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반복적으로 읽고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단계별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면담 내용 전사 및 자료 통합 과정

면담 과정 중 면담지에 기록한 내용을 파일로 입력하고 저장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면담 과정이 녹음 된 내용들도 입력하며 현장에서 얻은 환경적 정보들도 포함된다. 즉, 대상자에 대한 인상과 행동, 면담 중 보여 주었던 특징적인 모습들에 대한 기록도 해당된다. 연구자는 연구 목적에 맞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전사하였으며 대화 중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했던 대화의 내용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2) 자료 분석 후 분류 과정

통합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관련 영역을 분류하면서 자료를 분석하는데 수집된 자료가 어느 영역에 관련되는가를 파악하고 소제목 별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언어와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하위 요소의 내용들을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간접적 요소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도 분류하였다.

3) 의미 해석의 과정

면담 현장에서 수집 된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해석하는 단계로 연구자는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세부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분류된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읽는 과정에서 재범주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반복되는 의미해석의 과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IV.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사례 결과 분석

1. 한국어 어려움(발음, 쓰기)

연구 대상자 11명 중 7명은 중국(조선족) 출신으로 한국에 와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짧게는 4년 길게는 20년 동안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한국말 쓰기와 읽기에서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 조선족 어머니들의 경우 7명 모두 한국말에 대한 같은 어려움을 얘기했는데 사투리처럼 들리는 자신들의 발음과 억양에 문제가 있다고 했으며, 이런 발음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잘못된 한국 발음을 가르쳐 주게 될까봐 고민이라고 했다.

호치민에서 아는 베트남 사람인 선생님한테 조금 배웠어요...
애기 5개월 때 문화센터에서도 조금 배웠고요. 요즘 다른 애들
볼 때 속상해요. 놀이터 가서 놀 때 아이가 친구도 없어서요.
내가 한국말 많이 가르쳐 주면 친구랑 같이 놀 수 있을텐데.
놀다가 아이가 엄마 저거 뭐야하면 한국말로 못해요. 이젠 어
린이집 다니니까 말도 잘해요.

(리우, 베트남 23세)

한국어는 한국에 와서 어디로 배우러 다니지는 못하고 혼자
서 글씨 배웠어요. 처음에 올 땐 ‘안녕하세요’도 몰랐지요. 남
편이 말 많이 아니까 도움이 됐어요. 근데 애들 가르쳐 줄 때
는 나도 혼자 배운거라 받침 같은거는 잘 못 알려줘요. 나는
듣는 대로 쓰니까 틀리고. 그래서 아이들이 글씨 쓰는건 늦었

어요. 받아쓰기 할 때도 내가 발음이 이상하니까 자꾸 다시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학교 가서 잘 배울거라고 생각해요. 집에서 애들이 내 발음을 따라 배울까봐 그렇게 걱정이 돼요, 똑바로 말하려고 하는데 그게 정상으로 잘 안 되니까 그게 좀 심각하고 그런거죠

(미시영, 몽골 41세)

어린이집 다니고 말이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말을 잘 못했어요. 엄마 아빠가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지.. 저희가 맞벌이를 하니까 소홀해서 그런지. 저녁에 밥 먹고 바쁘고 그러면 교육 같은건 신경을 못 쓰거든요

(이영미, 중국 27세)

면담을 통해서도 나타나듯이 중국 조선족 어머니들이 이야기 하는 언어 문제와 베트남, 태국, 몽골 출신의 어머니들이 이야기 하는 언어 문제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중국 조선족 출신 어머니들의 경우 한국인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한국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자신이 중국 출신임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로 인해 받게 되는 주변인들의 시선이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이러한 심리적 경계심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자녀들의 또래 친구들이나 주변사람들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될까 걱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언어적 차이는 의사소통의 의미 외에도 나와 내 자녀가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신호로 지적했다.

하지만 태국, 몽골, 베트남 출신의 어머니들은 의사소통 자체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자녀들에게 제대로 한국말을

가르쳐 주지 못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자녀들이 커가면서 물어보는 어휘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주지 못하고, 대화의 내용도 거의 단순한 어휘만을 사용하게 되다보니 자녀들도 아버지나 선생님과 대화할 때 더 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 보여 속상하며 소외감을 느낀다고 했다. 영유아들의 성장과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머니가 자녀들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 중 중국 조선족 어머니들의 경우 유아기 때부터 조부모님과 가족들에게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고 사용해 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말로 대화하는 정도는 다른 국적의 어머니들에 비해 다양한 어휘를 사용할 줄 알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화를 이어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들은 한국말을 정확히 배우지 못했고, 중국 조선족 학교에서 배운 한국어와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에는 차이가 있어서 한국어 쓰기에 더 자신이 없다고 호소했다.

걱정이 되는건 이제 학교 갈 때 됐잖아요. 내가 못 가르쳐 주니까 한국 글이나 문화 같은거는 저도 몰라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내년부터는 한글도 배워야 하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발음도 좀 틀리고, 제가 조선족 학교에서 배웠을 때랑 한국에서 쓰는거는 많이 다른 거 같아요.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숙제도 체크해 줘야 하잖아요. 쓰기는 안되는데... 지금도 어린이집에서 뭐 써 달라고 하면 그게 겁나더라고요... 발음이 잘 안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웃잖아요.

(강미숙, 중국 31세)

저는 여기 와서 배웠어요. 간판, 신문, 그림도 보면서...혼자 많이 배웠어요. 전에는 천원도 쓸 줄 몰라서 아이스크림 살 때 만원 주고 거스름돈도 못 받았어요. 애기 어린이집 보내면서 대화장 쓰는게 있는데 말은 잘 하지만 내가 쓰는건 못해요. 받침이 너무 어려워요. 받침 틀리니까 진짜 창피하더라구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 다 써주면 좋잖아요. 가끔씩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밖에 못 쓰는 거야.

(최영란, 중국 33세)

결혼하고 중국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한국말 계속 배워요. 지금도 말 하는게 한국 사람들이랑 달라보여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싶어요. 지금도 애기 하면 중국에서 왔냐고 해요. 그게 싫어서요.

(허혜영, 중국 41세)

다문화 가정 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하는 선생님이 오세요. 저랑 아이랑 배우니까 좋았어요. 내가 못 하는 거는 해 달라고 해요. 우리가 글씨보고 잘 모르잖아요. 우리 문제예요. 설명서 보고도 못하잖아요. 동사무소 가서도 다 내가 해야 하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이 이끌어주고 설명해 주면 알 수 있어요. 우리 혼자는 안돼요.

(신지영, 베트남 32세)

연구 대상자들은 국적이나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읽기와 쓰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했던 한국말 읽기와 쓰기는 남편의 도움을 받지만 자녀와 관련된 일과 중에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도 한국말을 잘 읽지 못해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또한 자녀들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어머니가 한국말에 미숙하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 같아 두렵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엄마와 있는 동안 말을 잘 하지 않는 것 같고, 다른 가족이나 선생님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모습을 보일 때면 더 걱정이 된다고 했다.

2. 사회로부터 받는 편견과 서류상 가족이 아닌 자녀관계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이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는 그들에게 느껴지는 주변으로부터의 편견이다.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나의 자녀들 또한 나와 같은 편견으로 소외감을 느끼게 될까 걱정하고 있었다. 외모로는 거의 차이를 알 수 없는 중국 조선족 어머니들의 경우에도 이런 경험에 있는 것으로 호소했다. 이런 사례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어머니들도 같은 편견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지금은 소문이 무서워요. 일단 다문화는 무시 하는게 많아요. 애기 친구 엄마도 말투 보고 내가 조선족인거 알았데요 그 다음부터 좀 무시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10년 살면서 진짜 차별 많이 받았어요. 한 1년 전인가 우리 남편이 경찰공무원인데 같은 경찰 와이프랑 친하니까 서로 편하기 위해서(중국에서 왔다고) 얘기했는데 그 와이프가 신랑한테 얘기하고 나서 직원들끼리 퐁퐁 뭉쳐서 우리 애 아빠를 무시 했대요. 내가 그래서 애기 아빠보고 다른데로 발령 받아 가자고 해서 갔어요. 그 뒤로 속상해서 다신 그런 애기 안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에는 내가 일하는데서 돈을 안 주는 거야. 줄 거면 그냥 주지. 내가

소송한다고 해가지고 받았어요. 또 일하던 학원 원장님도 월급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해서 또 받았어요.

(최영란, 중국 33세)

저는 아는 사람이 옆집언니밖에 없어요. 저는 조심해서 친해지기 어려워서 그렇지 친해지면 잘 지내요. 처음에는 다문화 가정이라서 좀 꺼리는게 있어 친해지기 어렵더라고요. 사람도 못 믿는 편이구요. 남이 나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영미, 중국 27세)

한국사람 중에 친한 사람은 많이 없어요. 만나도 저 중국에서 왔다고 얘기 하면 잘 얘기 안해요. 이제 애 초등학교 가면 친구들도 사귀고 그러는데, 아이 학교 친구들이 제가 중국에서 온 거 몰랐으면 좋겠어요.

(김미란, 중국 34세)

위 어머니들의 사례를 보면 자신들이 한국 사회에서 무시를 당했던 경험때문에 자녀들이 어머니가 받았던 상처를 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더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별한 경험 사례가 없었더라도 한국 사회가 다문화 가정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밖으로 드러나지 않길 바라는 모습이었다.

연구 대상자들 중에는 결혼 이후 한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본국을 자주 왕래하거나 한국 국적 취득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어머니들이 있다. 이들의 경우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간소화된 서류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활용하기 어렵

고 번거롭게 되어 있다고 한다.

나는 지금 외국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적을 그렇게 바꿀 생각은 없었는데 애들이 학교 가야 하니까 급해졌어요. 결혼하고 몇 년 살았으면 국적 받는 것이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신청한지 2년 반이 됐는데도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호적 보면 엄마가 없는 걸로 되어있으니까 그게 속상하구요. 제일 짜증나는게 애들 데리고 매년 몽골 가야하니까 한번은 여권이 5년이 지나서 다시 받으러 갔는데, 내가 엄마여도 한국 사람으로 안되어 있고 호적이 정리가 안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혼인신고서랑 다 챙겨갔는데도 거기서는 아 빠보고 찾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내 애들인데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내 아이들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 버린 것 같아서 인간적으로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미시영, 몽골 41세)

내가 중국을 자주 왔다가 다시 가고 했어요. 우리 큰 애가 중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국적이 아직 안 나왔어요. 20년 살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기다리는 중이에요.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애들 때문에도 그렇고..

(허혜영, 중국41세)

3. 낮은 가계소득 수준과 남편의 무관심

본 연구 대상자들은 가정의 소득이 낮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 했다. 맞벌이를 하더라도 어머니의 직장이 일용직이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여서 일정한 소득이 아니라고 했다. 자녀들을 양

육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있어 경제적 여건이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은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 또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원했으며 자녀들이 앞으로 연령이 높아감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더 느끼게 된다고 말한다. 사회적인 보육료, 교육비 지원체제가 있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낮에 6시간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일을 더 해야지. 애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지원비는 100% 받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애를 봐주는 시간이 9시까지 오래 봐주는 곳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학교 들어가면 저녁에 숙제도 봐줘야하니까 차라리 아이 어릴 때 몇 년 더 벌어야죠.

(김미란, 중국 38세)

일단 돈이 있어야죠. 어린이집 보육료가 지원이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 가족이 5명인데 남편 월급으로는 힘들어서 지금 마트에서 낮에 일하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이렇게 힘들게 안사니까요.

(최영란, 중국 33세)

지금 우리 애는 유치원 보내고 있는데 지원비가 안 나와요. 애가 아직 호적 정리가 안돼서 지원비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는데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둘째도 태어나고 하니까 받았으면 좋겠어요.

(최성은, 중국 31세)

솔직히 교육비가 부담스러워요. 한국에서 10년 정도 살았고, 2007년도에 신청했는데 안나오더라고요. 이런 조건에서는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공부할 애들인데 지원도 못 받고 있어요.

(허혜영, 중국 41세)

애들 먹는걸 아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비도 부담이 되고, 수입에 비해 교육비도 부담스럽죠. 이거저것 가르치다 보니까 지원비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영미, 중국 27세)

가계 소비 중 자녀 양육에 크게 소비되는 내역을 살펴보면 자녀들의 교육비 및 보육료이다. 연구 대상자들은 자녀들이 받게 되는 보육료가 작년까지만 해도 차등적으로 지원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1년도부터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보육료가 지원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학원을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육료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었으나 그밖에 양육에 필요한 자녀들의 의복비, 놀잇감 구입비, 어린이집에서 받는 필요경비 등의 비용이 부담되기도 한다고 호소했다.

연구 대상자 8명 중 5명의 어머니들은 친정 부모님들이 가까운 곳에 거주하거나 함께 거주하는 경우였고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직장생활로 인해 바쁜 남편들이 적극적인 도움을 주지 못해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남편이 가게를 하니까 늦게 끝나요...가게 하면서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고 임신상태니까 저도 힘들죠.. 그래서 친정 엄마가

많이 도와줘요. 가족들이 먼저 도와주는게 도움이 되죠. 근데 남편은 일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안 놀아요.

(최성은, 중국 31세)

그냥 한국남자처럼, 가끔 도와줘요.

한국사람 남자잖아요. 여러 사람 생각 안하고 자기 생각만 많이 해요.

(이영미, 27세)

남편이 가사 일을 도와주거나 자녀를 돌봐주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들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고,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며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해 주길 원한다. 그리고 더 나은 가족생활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많다고 했다. 자녀 양육에 있어 남편과 가족들의 도움이 많은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아빠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자녀들과 아빠가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다문화 가족의 경우 외국인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정신적 어려움을 이해하여 가족 내에서의 아빠의 역할이 막중함을 알려야 한다. 무엇보다 남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은 결혼기간, 어머니들의 출신국가, 나이 차이, 자녀수에 관계없이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야기 한다.

남편이 바쁘기도 하고 애보는 걸 무서워해요. 어떻게 놀아주는지도 모르고 보채면 못 봐요. 봐달라고 하면 5분 봐주고, 그냥 자기 할 일 해요. 아빠가 혼자 봐주는 일은 거의 없어요. 아무래도 혼자 애를 보다 보니까 남편이 봐주면 더 나을텐데...친

정 엄마가 가까운데 계셔도 일 다니시니까 애 봐달라고 해도...
남편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는게 제일 필요하죠.
(강미숙, 중국 31세)

남편이 안 도와줘요. 애기는 하는데 잠깐 봐주고 자기 할 것
다하고, 7시 땡 하면 퇴근하는데 안 도와줘요. TV만 보고, 같이
놀아주지는 않고 그냥 노는거 봐요.
(최영란, 중국 33세)

최영란씨는 둘째를 출산하면서 산후 우울증을 겪기도 했다. 그래서 더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려고 하고, 스트레스를 줄곤 받지만 주변의 사람 있으면 그냥 얘기하면서 풀어버린다고 호소 했다. 남편의 귀가 시간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놀고 돌봐주기를 바라는 희망사항이지만 역시 남편은 자기 할 일만 한다고 토로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심층 면접을 통한 사례 연구이며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 때문에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은희(2004)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의 미흡한 언어능력은 어머니와 자녀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에도 영향

을 미쳐 유아의 언어적인 발달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처럼 자녀들이 겪게 되는 언어 문제가 주변사람들의 차별과 편견을 만들어 결국 자녀의 낮은 자존감, 낮은 자아정체성(조영달, 2006)을 형성하게 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공격성 또는 위축된 문제행동(박미경, 2007)을 보이기도 하며, 부모의 미숙한 한국어 실력 때문에 자녀가 부적응을 경험(강현주, 2007)하거나, 언어미숙인 어머니가 생활의 어려움으로 불행함을 느낀 경우의 자녀들은 열등감(허미화, 2008)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언어 미숙이 단지 의사소통의 불편 그 이상인 것으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들은 자신들의 미흡한 한국어 실력 때문에 자녀들에게 다양한 어휘를 가르쳐 주지 못하며, 자녀들의 또래 관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또한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자녀들의 언어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까봐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 자녀들이 한국말을 잘 배웠다고 하더라도 어머니의 불편한 말투를 자녀가 따라 배우게 될까봐 걱정을 호소하고 있었다. 몇 년 동안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어머니들은 이러한 말투의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령 전부터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 올바른 한국어 배우기를 선호한다고 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낸 뒤에도 보육시설, 유치원 선생님과 의사전달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원에서의 생활을 가정에 알려주고, 가정에서도 자녀의 특이 사항에 대해 전달을 받기 위해 사용되는 ‘일일 전달장’에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은 거의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 부족 문제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쓰기에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략적으로 중국 조선족 어머니들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심각하진 않지만 미흡한 말투와 글쓰기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그 외 다른 국가 출신의 어머니들은 선행연구에 나타난 것처럼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적 취득 및 호적 문제와 주변의 편견 때문에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은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 상당히 위축된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적법 제5조 일반 귀화 요건에 따라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법적인 요건에 맞춰 국적 취득을 신청하였더라도 절차상의 문제로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은 짧게는 1~2년 길게는 2~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불필요한 국적취득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녀출산과 양육에 어머니로서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기 어렵고 자신감도 많이 저하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경우가 많으며 혼인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적 취득 과정에서 여성결혼이민자는 배우자나 그 가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취약성은 가족 구성원들이 그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한국인 남편들 중에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완전한 독립을 가로막기 위해 그들의 국적취득을 저지하는 현상이 나타난 경우도 있다고 보고했다(김혜련, 2011).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국적취득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므로 어머니로서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어머니, 아내의 역할을 수행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순원(2009)은 우리사회의 기본적인 인권 즉,

사회적 약자 모두에 대한 연대감에 기초한 보편적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여타 관련된 어떤 정책과 교육이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셋째,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는 남편의 낮은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부담 및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연구 대상자들의 남편직업은 건설 현장, 생산 노동직이 절반을 차지했으며 이들 대부분 중하위의 소득 수준으로 인해 생활비,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들의 지원비도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전액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신들의 경제적 상황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자녀 양육과 관련해 가족 모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의 혜택을 받고자 하며 가정 소비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자녀의 교육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나타났다. 관련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에서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경제적 박탈감(안현주, 2006)을 지적했고, 김현희(2007)는 빈곤 또는 저소득층 가정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은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 해야 하는 분위기로 진행되며, 이때 언어장벽으로 어머니의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곧 부부갈등, 가정폭력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설동훈(2005)은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수준이 60%이며, 그 이유로는 생계유지(51%), 교육비(17%)로 보고했으며, 취업직종으로 서비스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지적했다. 가정의 낮은 소득 외에 가정과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남편에 대해 서운함을 호소했고, 그로 인해 자녀양육에 더 큰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했다. 연구 대상자들은 남편들의 바쁜 사회생활로 인해 늦은 귀가, 부부간의 대화 시간

부족, 자녀들과의 놀이 시간과 경험 부족을 거의 다 호소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회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들에게 남편의 존재는 한국 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의 남편들은 직장생활로 인해 부부간 대화시간 부족은 물론, 자녀들과 놀이시간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선행된 김미숙(2009)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비교연구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이 자녀양육에 대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으로 낮은 가정소득과 양육관련 지식의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미숙한 점들에 대해 일상적으로 상의할 남편이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 남편과의 소통의 문제로 양육관련 지식이 뒤떨어질 수 있으며 이로서 양육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양육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위로해 줄 남편의 빈자리에 대한 한 섞인 설움이 있다.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언어적으로 미흡하고 한국사회의 풍습과 문화 전반에 대해 잘 이해시켜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뜻한 관심을 보여줄 남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한경선(2008)은 한국어 실력이 낮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다고 지적했다. 정보와 지지체계가 약한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모성역할의 자신감을 향상시키며, 양육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진희, 2009). 설동훈(2005)은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이 언어와 문화차이 등으로 인한 부부갈등, 불화, 부부폭력 등에 대해 상담 받거나 도움 받은 사람이 전혀 없었으며, 복지관련 기관의 도움도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영옥

외(2008)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을 통해 부부각자의 특성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공동책임의식을 가져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버지가 어머니의 한국어 습득을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며 문화적 표출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여 정체성을 가지도록 적극 배려해야한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인 소수자 대상의 다문화 교육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아버지와 가족모두 즉, 다수자 대상의 이해교육도 병행하여 모두를 아우르는 융합교육을 지향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강순원, 2009).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지역사회와 정책적 지원 측면에서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 사회의 이해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사회가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들을 위한 초기 사회 적응을 위주로 한 정책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역할과 책임이 공동으로 분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 혼자만이 아닌 남편과 가족들 또한 이러한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정서와 생활 방식을 이해하며 한국생활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지 남편, 가족들과 함께 고민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아버지들 또한 자신들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 지원 사업에 있어 한국인 아버지들을 위한 교육과 만남의 장이 열려야 할 것이다. 아버지들이 외국인 아내의 언어와 문화, 생활환경의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그룹 활동을 통해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도움

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활발한 다문화 모임 문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곧 앞으로 태어날 그들의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가족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자신감 있는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둘째, ‘다르다’는 편견 의식에서 벗어나 통합의 문화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시민의식이 요구 된다. 전통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타민족에 대한 이해와 융합이 부족한 우리 사회가 다문화 가정을 받아들이는 방법의 하나로 그들을 ‘다문화 가정’이라 명칭하며 따로 구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한다.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우리가 치중하고 강조함으로써 결국 이들을 낙인찍는 또 다른 차별화교육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한다(강순원, 2009).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이 이러한 걱정에서 벗어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학교와 단체 생활의 참여를 통해 최선의 교육적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정책지원이 되어야 한다. 2011년도 예산안 중 ‘서민희망 예산’의 3대 핵심과제의 하나인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자립지원’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및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보제공, 언어교육 등 조기정착 지원,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이해 교육이 구체적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시기이다. 이진영 외(2009) 연구에서는 상호이해교육이 다문화시대의 한국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한국이주자 중 중국인의 비율이 절반, 그 절반 중 중국동포가 한국에 이주하는 상황에서 먼저 혈연적, 문화적 유사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동포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며 상호이해가 결여된 다문화 이해는 어색하다고 지적했다. 셋째, 가정 소

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취업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취학 전 아동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은 앞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을 위해 경제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2010)에서는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와 직업 능력 개발 지원 및 일자리사업을 우선 제공할 예정이며 결혼이민자의 지역기업 일자리 발굴과 취업 지원을 위해 매월 지원비 책정 계획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육지원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신감을 찾아가며 어머니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현덕(2007)은 다문화와 연관된 한국사회의 교육쟁점은 다문화교육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초기에 입학상담, 학습지원을 하고 민간중심의 특별학급의 특별프로그램과 법률서비스도 있었으나 다문화교육에 대한 중앙/지방간 역할분담과 지원 미흡과 학교중심의 다각적인 관련시책 부진이 지적을 받게 되면서 2007년 교과부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을 국가의제로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지원 조정하겠다고 밝힌 이후 다문화교육의 효율적 시행을 기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순원(2009). 다문화교육의 세계적 동향을 통해서 본 국제이해교육과의 상보성 연구. **국제이해교육연구** 4권1호. 5-56.
- 강현주(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모국문화 표출유지 욕구와 정체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갑성(2006). 한국내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실태 조사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남숙(2009).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결혼 만족도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도희(2008). 결혼이민여성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영향 연구: 문화적응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미숙(2009).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비교연구: 내국인과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김영옥, 임진숙, 정상녀(2008).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개인변인에 따른 양육태도 비교,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143-164

김영천, 이용숙(1998).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방법과 적용. 교육과학사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2007)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18, 291-308

김현덕(2007).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의 관계정립을 위한 연구. 국제이해교육연구 제2호.

김현희(2007). 한국결혼이민 배경과 현황. **민족연구**, 31, 한국민족연구원. 6-50.

김혜련(2011). 다문화시대 여성결혼이민자의 시민권에 관한 연구: 중국여성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미경(2007).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 가정 유아의 특성 및 교사의 어려움: 결혼이민자 가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원준(2010). 다문화 가정 자녀의 생활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설동훈 외(2005). 국제결혼 이주 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신혜정(2007). 다문화 가정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효선(2008). 다문화 가정 자녀의 생활환경이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은미(2007).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현주(2006). 한국남성과 국제결혼한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과 대응: 여성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영자(2008) 한국 다문화교육의 개념 정립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오성배(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 교육**, 32(3), 61~83
- 유재신(2009).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의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준채, 이형래(2007). 문식성 교육 연구방법론-실험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회**. 30. 357-378.
- 이진영외 (2009). 다문화시대 국제이해와 중국동포와의 교육협력. **국제 이해 교육연구**. 4(1), 57-85.
- 이진희(2009). 이주여성 어머니 교육 프로그램이 모성역할자신감과 양육 스트레스 및 신생아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상미(2006).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지원 요구도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기선 외(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의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 2007-02 정책보고서.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정선희(1997). 다문화 교육에 관한 유아교사의 인식과 실태조사.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은희(2004).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 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현영(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아시아 여성과 한국남성의 이중문화 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영달(2006). 다문화 가정 교육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 과제 2006-이슈-3.

- 조영숙(200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 조절능력간의 관련성탐색.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채정란(1999). 다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생활주제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순자(2005).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 도덕성 관계.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하경애(2010).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과 영향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경선(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행정자치부(2007).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 허미화(2008). 한국사회의 다문화적 변화와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교육환경 고찰. **한국유아교육학회**. 28(1) 265-281.
- 홍영숙(2007). 다문화 가정이 봉착하는 자녀 교육 문제와 시사점. 광주 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idin, R. P(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The Journal of Clinical Child*, 21(4), 401-412.
- Bogdan, R, & Biklen, S(2006).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ies and method*(5th ed). Boston: Allyn & Bacon.
- Denzin, N. K, & Lincoln Y. S. (Eds.).(2003). *Collecting and interpreting qualitative materials* (2nd ed).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Abstract

A Case Study of Parenting Difficulties for a Multicultural Family

Hur, Young Rim
(Kookmin University)

Kwak, Jeong Sun
(Kookm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gure out the difficulties of parenting that mothers who were having a multicultural family explores and who lived in Seoul and Gyeonggi area. They were born from ethnic Koreans in China, Thailand, Vietnam and Mongolia. These mothers have taken care of the children who were young less than 5 years of age. The targets of this study were 11 mothers who were having a multicultural family and who were parenting preschoolers, case studies were perform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record. It had the steps of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about research topic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a difficulty of communication. Ethnic Koreans mothers in China and mothers from other countries had common difficulties that Korean is difficult to read and write. When their children went to kindergarten, they were difficult to communicate with teachers about child problem due to speak and write in the limit. Second, these were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from the Korean society. They were worried because their children would get teasing and discrimination because mothers were foreigners.

Third, they were the economic difficulties. Even if they received the child care support but they needed other expenses such as instructional costs. They felt difficulties because of the absence of fathers parenting. The husbands were indifferent to parenting, also they did not know how to take care their children. As a foreign mother, they wanted more opportunity to talk with their husbands as a supporters and mentors.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y, parenting difficulties, qualitative case study

투고신청일 : 2011. 10. 12

심사수정일 : 2011. 11. 15

게재확정일 : 2011. 12. 10